

\* 위기가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바뀔면 막다른길도 활로가 된다.

- 108 자재어 중에서 -

# 세원소식지

[www.sewonsa.com](http://www.sewonsa.com)

\*펴낸이 : 정 윤

\*편집인 : 유 진

\*펴낸곳 : 세 원 사

\*인쇄 : 형제인쇄·광고

## 조계종 신행 방법상에서 본 독송 · 간경

정 윤 (세원사 주지)

조계종의 종지宗旨는 선을 근간으로 하지만, 통불교적인 성향입니다. 조계종 종법에 참선 이외에도 염불 · 간경 · 주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참선만이 아닌 주력과 독송 염불도 참선만큼 수행법으로 중시한다는 뜻입니다. ‘대승불교’ 사상이 참선이든 염불이든, 간경이든, 주력이든 그 어떤 수행법이든 이고득락離苦得樂을 위한 평등한 방편이라는 점을 내포합니다.

『금강경』 23품에 “이 법은 평등해서 높고 낮음이 없다[是法平等 無有高下]”라고 하였고, 또 7품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 이것이다”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다[無有定法 名阿耨多羅三藐三菩提]”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능엄경』에서는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은 두 길이 없으나 방편 따라 가는 길에는 여러 문이 있다[歸元性無二 方便有多門]”라고 하였습니다.

즉 ‘해탈 경지’라는 목적지는 똑같지만, 그곳에 이르는 수행법에 있어 다양함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불자들이 어떻게 염불하고, 독송하며, 주력을 하든 스님들이 수행하는 것과 똑같이 훌륭한 기도이고, 수행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대승불교’의 참 뜻입니다.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로, 불교도 종교로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런 믿음[信]을 바탕으로 진리를 이해[解]하고, 이해한 뒤에 실천[行]이 따라야 하며, 실천[수행이나 기도]이 잘 되었다면 반드시 증득證得[결과 · 과보]이 있기 마련입니다. 곧 불교의 신행체계는 신 · 해 · 행 · 증으로 구조를 이룹니다.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信]만 있고 이해[解]가 없다면 결국 번뇌만을 증장시키고,

또한 이해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샅된 견해만 생긴다. 그러므로 믿음과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 수행[行]하면, 반드시 증득證得이 있다.” - 『열반경』

자! 그렇다면 믿음을 바탕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기도 · 수행이 수반되어야 무언가 증득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信]과 과보[證] 그 사이에 가교 역할[믿음 ⇄ 증득]을 하는 것이 실천인데, 그 실천 가운데 하나가 간경입니다. 오늘 불자들에게 말씀드릴 법문은 바로 ‘독송 · 간경看經’입니다.

‘독송’에 대해서는 <법화경> · <금강경> · <유마경> · <화엄경> 등 대승불교 여러 경전에 기도법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5종 수행’ 가운데 하나로 언급하고 있고, <금강경>에서도 독송에 대해 수십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5종 수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① 수지受持는 부처님의 뜻을 잊지 않고 받아 지니는 것으로 진리에 수순해 살아가는 것.
- ② 독讀은 경전을 되풀이 하여 읽는 것.
- ③ 송誦은 암기된 경전 문구를 외우는 것.
- ④ 해설解說은 타인에게 부처님의 좋은 진리를 해설하고 전달하는 것.
- ⑤ 사경寫經은 경전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는 것.

위의 ②두 번째와 ③세 번째가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독송’입니다. 그렇다면 독송과 간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독송은 부처님의 경전을 외거나 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경은요? 물론 간경에 대해 사전적인 해설이 있지만,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곧 독송을 하면서 단순히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지극한 간절함을 갖고 마음으로 수행하듯이 경전을 읽는 것을 간경看經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간화선’ 할때, 간화看話도 화두를 방편으로 하여 수행하듯이 경전 독송도 이런 마음이어야 합니다[간화선은 불조佛祖의 대화나 말을 간看하며 참구하는 것. 즉 화두로 삼아 자기의 본래심을 조고照顧하며 공부하는 것을 말한다. 화두는 번뇌를 깨달음으로 전환하는 도구 방편인 것] 그래야 완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www.sewonsa.com](http://www.sewonsa.com)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세원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많은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수행의 과일에 대해 질문하면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이런 수행을 한 사람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법칙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을 것이다. 이를 ‘법경法鏡’이라고 이름 한다.

훗날 내가 열반한 뒤에는 공부할 표본이 없으니,  
이 법경에 비추어 스스로 살펴보라.” - <아함경>

불자들이 독송하는 경전 구절이 자신을 반조해보는 것으로 여기고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는 겁니다. 곧 경전 독송을 법경으로 삼을 때, 그것이 간경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독경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간경수행이 될까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첫째, 한번 독송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세로 읽어야 합니다.

곧 숫자적으로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 독송해야 합니다. 6조 혜능(638~713)선사의 제자인 법달은 7세에 출가해 항상 <법화경>만을 공부했습니다. 거의 암기했을 정도이니까요. 법달이 혜능 선사를 처음 찾아와서는 절을 하는데, 예의도 갖추지 않고 건성으로 인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에 혜능 선사가 법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만부의 경을 외워도 아만심을 꺾지 못하면 업만을 키울 뿐이다.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면, 바로 내가 경을 굴리는 것이요,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바로 내가 경에 굴림을 받는 것이다.”

口誦心行 卽是轉經 口誦心不行 卽是被經轉 — <육조단경>

또 빨리어본 <법구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행은 하지 않고, 오롯이 경전에만 몰두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만심이 가득해서 주위 도반들에게 자신의 학식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을 아무리 많이 외우더라도 진심어린 수행이 결여된 사람은

마치 남의 소를 보살피 주고 수고비를 받는 목동과 같다.

반면 수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목장의 주인과 같다.” — 계승 #19, 20 참조

② 둘째, 경전 독송하는 동안 장원심長遠心을 가져야 합니다.

독경을 하기로 서원하였다면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꾸준히 밀고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독송을 잘 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나 괴로운 일이 생겼다고 마음이 퇴보되어 중지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나라 때, 백운 수단(白雲守端, 1024~1072) 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날 귀종사의 서당西堂에 은거하면서 경전과 역사 서적을 열심히 열람할 때에 수백 번도 더 읽었으며 책장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낡아 버렸다. 그러나 책을 펼 때마다 반드시 새로운 의미를 터득했다. 여기서 학문이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점을 터득했다.”

— <선림보훈> 상권

백운스님이 경전 내용을 몰라서 책장이 떨어질 정도로 읽었을까요? 장원심을 갖고 꾸준히 하셨다는 뜻입니다. 불자들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꾸준함을 갖추기만 하시면요!!

③ 셋째, 물론 근기根器에 따라서는 여러 경전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자님께서 어느 기간 동안 독송하겠다고 서원을 세웠다면,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한권의 경전을 선택해서 꾸준히 독송하십시오. 하나의 경전을 선택하여 꾸준히 독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국 근현대불교의 선지식인 허운(1840~1959) 스님 법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심이 갖추어졌다면, 이것 저것하면서 바꾸지 말고 그 한 가지를 밀고 나가야 한다. 염불·주력·참선 어떤 것이든 하나를 선택하여 일관되게 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어제는 어떤 선지식이 염불이 좋다고 하니까 염불해보다가, 오늘은 다른 선지식이 참선이 좋다고 하니까 또 며칠 참선하는 이도 있다.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하면서 한 평생을 허비하다 죽으면 지금까지 해놓은 수행이 모두 허송세월 되어 해탈에 도움 되지 못한다. 그러니 반드시 한 가지를 일관되게 수행해 나가십시오”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겠다고 정했거나 하나의 경전을 선택했다면 꾸준히 하나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 한 경전을 통해 진리를 얻었다면, 모든 깨달음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일통일체통—通一切通’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깨달았을 때,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경전 독송·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간경을 통해 깨달음을 이룬 스님들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서는 경전과 관련해 깨달음을 이룬 분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육조 혜능(六祖慧能, 638~713) 선사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불자들이! 다 아시지요? 혜능 선사는 영남(현 광동성) 사람으로 흠어머니를 모시고 땀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를 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주막집에서 잠깐 쉬

고 있었습니다. 마침 방에서 한 승려가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응무소주應無所住 이생기심而生其心[응당히 주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구절에 시절 인연이 닿았던 겁니다. 선사는 바로 출가를 결심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혜능 선사가 <금강경> 독송 소리를 듣고 출가해 선종이 발달하게 되어 선종[우리나라 조계종 포함]의 소의경전이 <금강경>이 된 것입니다.

이 혜능스님과 똑같은 조선시대 스님이 있습니다.

화악 문신(華嶽文信, 1629~1707) 스님입니다. 문신스님은 해남 대흥사에 상주했던 인물로 대흥사 13대 중사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며, 법맥으로는 서산 휴정의 소요파 문도에 해당합니다.

문신 스님은 전라도 해남 사람입니다. 어릴 때 집안이 가난해 사찰에 들어가 승려가 되었지만, 글자를 모르니 경전과 답을 짚고 살았습니다. 당연히 사찰의 부목이나 다름없이 일만하다가 나이가 들어 문신스님은 호구지책으로 농기구 보부상을 시작했습니다[조선시대는 스님도 경제활동을 함].

낮·호미·쟁이·보습 같은 농기구를 잔뜩 짚어지고 이 절저 절 다니며 행상을 했습니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에 화악의 비명碑銘이 전하는데, 다산이 선사의 비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선사가 호매豪邁하되 어린 시절 불우했던 것이 매우 슬프고, 이를 극복해 큰 선지식이 된 것에 감명을 받아 비명 쓸 것을 허락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문신스님은 장사를 하는데, 해남 대흥사 상원루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너무 힘들고 지쳐 누각 밑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마침 누각 위에서 야단법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화엄의 대가인 취여 삼우(醉如三愚, 1622~1684) 선사가 승려들과 신도들을 모아놓고, 화엄종지를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문신스님이 <화엄경>의 경전 구절을 듣는 순간 '쿵'하며 심중에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문신스님은 옆의 동료 행상에게 농기구를 다 건네주며, 앞으로 자신은 장사를 하지 않고 정진할 것이라고 말한 뒤 누각 위로 성큼 성큼 올라갔습니다. 문신스님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삼우 스님에게 다가가 절을 한 뒤에 참회하며, 눈물을 비 오듯이 흘리며 흐느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며 문신을 끌어내려 했지만, 삼우스님은 주위 사람들을 저지했습니다. 문신은 '자신은 본래 승려이고, 대사의 법문 한 구절에 깨달은 바가 있어 대사 밑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문신스님은 발심해 낮에 일하고, 밤에 간경한지 3년이 지나 공부가 일취월장되었습니다. 이후 깨달음을 얻고 삼우선사에게서 법을 받아 이때 '화악 문신'이라는 호를 받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전국에 퍼지자, 문신에게 공부코자 승려들이 구름 떼처럼 몰려왔습니다. 선사가 대흥사에서 화엄산림법회를 열자, 전국 각지에서 1,000여명의 승속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 명나라 때, 중봉 명본(中峰明本, 1263~1323) 스님은 <금

강경>을 독송하는 중, '여래를 짊어진다[荷擔如來]'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만공(1871~1946) 스님은 <화엄경>의 '법계의 성품을 관하니, 오직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구절에서 만법귀일萬法歸一 화두를 타파했습니다. 그 외 경전으로 인연이 되었거나 경전 구절에서 깨달은 스님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혜능·문신·명본·만공 스님 등은 과거 생애에서의 인연이든 이번 생애에서의 인연이든 경전을 통해 (깨달음의) 시절인연이 닿았다고 봅니다. 불자님들도 얼마든지 경전을 통해 공부할 수 있고, 스님들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경·간경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경전을 독경하고 간경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을까요? "경을 베끼고, 수지受持하며 독송해서 남을 위해 설해준다면 그 복덕은 어떠하겠는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덕이 무량할 것이다." - <금강경> 15품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해 독송할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역경계를 만나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인해 악도에 떨어질 것인데, <금강경>을 수지·독송한 공덕으로 인해 현세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미리 받는 것이다. 따라서 전세의 죄업이 바로 소멸되고, 더 나아가 가장 높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 <금강경> 16품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고, 몸에 병이 생기지 않으며,

얼굴이 깨끗하고, 다음 세상에 빈궁하거나 천한 곳에 태어나지 않는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인을 사모하듯 좋아하며,

천상의 동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시중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같이나 작대기로 해를 당하지 않으며,

독약으로부터 해함을 당하지 않는다.

혹 어떤 사람이 욕을 하면 그 입이 막히고,

여러 곳을 다녀도 두려움이 없으며, 사자처럼 두렵지 않아 지혜의 밝은 광명이 해와 달처럼 법화행자를 비출 것이다."

- <법화경> 「안락행품」

방금 경전 문구를 빌려서 말씀드린 대로 경전 독송의 공덕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전세의 죄업 소멸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생애에서도 안위와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체가 건강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밝은 지혜를 얻고, 다음 세상에는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송 간경을 통해 해탈 열반을 얻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불자님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바로 인과법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 세원소식

## 후원금 현황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지출	
박순애	30,000	유정현	10,000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000
이정숙	20,000	유진스님	20,000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50,000
유성운	30,000	서동창	10,000	보령시한국청소년연합회	800,000
이장희	50,000	이건립	20,000		
이주연	20,000	광명미용실	50,000		
부성보	50,000	광명전기	50,000		
이용렬	5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강상훈	20,000	이경화	50,000		
오희순	30,000	김중성	50,000		
양정하	30,000	곽완서	20,000		
박연우	30,000	배두성	20,000		
강진아	20,000				
김규태	20,000				
권송은	20,000				
유홍주	30,000				
이원호	50,000				
최창복	50,000				
이선엽	30,000				
조명연	5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박인자	50,000				
이영구	50,000				
김현준	10,000				
한명현	30,000	계	1,150,000	계	900,000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6년 3월 17일~2026년 4월 14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정)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기부금 지출입니다.



###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 매주 화요일 : "위기청소년심리교육"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청소년자살예방교육" "학교적응력향상" "품성계발" "바리스타" "흔들림을 성장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관계형성 공동체캠프" "시진로탐색교육" "대인관계" "스트레스관리"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자살예방교육" "검정고시학습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자원봉사" "정신건강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 매주 화요일 : "전통차배우기" "스포츠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가야금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월드테마파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친환경에너지모형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동아리활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 매주 화, 목요일 감시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